

## 교과서 내용 수정신청서 제출을 앞둔 기자회견

1999년 7월 2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강당

주최 :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 외 32명)가 28일 오후 동성애관련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교육부에 수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1998년에 개정된 교육부 발행 고등학교 <국민윤리>와 <교련>,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성과 행복>이라는 성교육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는 동성애를 성도착증이나 이상 성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를 에이즈의 주범으로 오도하는 내용을 실고 있다. 특히 <국민윤리> 교과서는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문란해지면서 동성애가 그 중 한 형태로 늘어났으며 이것은 상업주의에 기인하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교련> 교과서와 <성과 행복>이라는 교과서는 에이즈가 동성애 성행위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에이즈는 성적지향성에 관계없이 보균자와의 성행위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이며 실제로 기록상으로 보아도 이성애 성행위에 의한 감염자가 훨씬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정신의학회(APA)는 동성애를 더 이상 질병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위 교과서가 묘사하는 것처럼 동성애는 성도착이나 변태성욕이 아니다. 동성애자는 단지 성적대상이 동성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상기 교과서는 동성애·동성애자를 마치 성도착이나 변태성욕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서의 교사용 지침서에서는 성적지향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교과서는 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수록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지향성으로 보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무시한 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과서 내용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로 교육받는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조장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비관자살까지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아직 통계결과가 없지만 미국 후생성 통계발표에 의하면 동성애 정체성을 비관한 자살율이 일반 청소년 자살율의 6배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동성애자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청소년들에게 내재화시켜 각종 혐오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를 만들어낼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판단하에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이석태 외 변호인단(덕수합동법률사무소)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할 것이다.

이번 수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것을 성적소수자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치 않는 비민주적이고 야만적인 억압으로 규정! 타 동성애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관련된 실제 교과서 내용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성을 매개로 한 향락 산업이 번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인신 매매범이나 가정파괴범이 늘어나고 있다. 에이즈, 동성연애, 매춘, 성폭행, 마약, 음란 비디오, 저질 만화 등이 늘어나면서 성도덕의 문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성을 상품화하려는 상업주의에서 기인하며, 개인적으로는 성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성 윤리관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교육부 발행. 고등학교 윤리, p105-106. 1999. 3. 1.)

'동성애는 자신과 같은 성에 대해서만 성적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 정도를 지나친 성도착증, 이상 성욕 등은 청소년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성 의식과 성 역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 발행. 고등학교 교련 p268. 1999. 3. 1.)

'에이즈 감염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 동성연애자, 무분별한 이성간의 성 행위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오염된 주사를 맞은 사람,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체에서 태어난 태아에게서 발견된다.' (교육부 발행. 고등학교 교련 p270 1999. 3. 1.)

'에이즈 예방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문란한 성행위를 삼가고, 동성연애자, 약물복용자, 매춘 행위자 등과의 관계를 피해야 하며 깊은 입맞춤도 위험하다.' (서울시교육청 발행. 성과 행복, P82. 1998. 3. 2.)

'우리나라에서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에 의한 성교, 동성애, 성폭력, 성도착증 등을 성적 문제 행동으로 본다.' (서울시교육청 발행. 성과 행복. p83. 1997. 10. 1.)

'매매춘이나 동성 간의 성관계와 같은 불건전한 성문화는 건전한 성문화를 왜곡시키며, 여러 가지性病, 특히 에이즈(AIDS)와 같은 무서운 병의 전염 경로가 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 발행. 성과 행복. p85. 1997. 10. 1.)

Me. a. 19

## 교과서 내용 수정 신청서

1999. 7. 22

신청인 별지(1)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서울 종로구 창신1동 327-2 금호팰레스빌딩5층(110-541)

신청인들은 교과용도서예 관한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신청합니다.

### 신 청 취 지

별지(2) 기재 각 교과서의 내용중 동성애와 관련하여 잘못 기술된 각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 신 청 원 인

#### 1. 신청인들의 지위

신청인들은 동성애자들 및 동성애자 단체로서, 별지(2) 기재와 같이 동성애와 관련된 각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에 의하여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의 침해를 받았습니다.

#### 2. 교과서 내용의 중요성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교육 내용은 교과서를 통하여 구체화됩니다. 교과서

는 학생활동의 주된 자료이며 학생들의 지식·신념·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증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과서제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와 달리 국가가 그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교과서 내용에서 객관적 진실성과 합리성 및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따른 엄정한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제25조에서는, “1종 도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편찬한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2종도서의 저작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매학년도 또는 매학기 개시 10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들에게 교과서 내용 검토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종 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2종 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제2항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하여 교육부장관에게 1,2종 도서와 인정도서 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의 수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교과서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여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동성애·동성애자에 관한 별지(2) 기재 각 교과서의 기술부분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과 동떨어진 채 철저하게 왜곡되어 학생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

어 주거나 편견 및 혐오증을 크게 조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내용들은 모두 검증된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교과서 내용 수정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 3. 교과서 내용중 동성애 관련 부분 기술의 문제점

#### 가. 교과서 내용중 동성애 관련 부분의 요지

별지(2) 기재의 각 교과서 내용중 동성애에 관한 기술 부분을 보면, 1) 동성애를 성도덕의 문란 또는 성적 가치관의 혼란 등에서 오는 성적문제 행동으로 보고 있고 2) 에이즈의 주된 감염 원인중 하나로 동성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윤리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 나. 동성애와 성적 지향성

동성애(homosexuality)는 정신질환이나 변태성행위가 아니라 동성간의 사랑을 추구하는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는 것이 현재의 국내외 정신의학계, 심리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ICD-10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체성 자체는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동등한 입장에서 가치 중립적인 성격으로 진단·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통계편람 DSM(Diagnostic &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성애에 대한 현재의 보편적인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 학회의 이사회는 1973. 12. 15. 통계편람 DSM 제2판에서부터 동성애 조항을 정신질환의 목록에서부터 삭제하기로 결의하여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질병이나 질환이 아니라 성행동의 정상적 지향체(normal orientation)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역시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재천명하였는데 동성애 그 자체는 판단능력, 안정성, 신뢰성 또는 전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능력에 어떠한 손상도 내포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위 DSM은 1994년에 제4판까지 발간되었는데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하나로 보는 항목은 현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행동의 하나로 보지 않고, 성도덕의 문란과 관계가 있다거나 성적인 가치관의 혼란에서 비롯되는 성적 문제행동으로 기술한 교과서의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 동성애와 에이즈

동성애가 그 자체로 에이즈의 독립된 감염경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에이즈의 초기 발생이래 이미 의학적으로 확립된 정설입니다. 에이즈의 감염경로나 원인에 대하여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현재 에이즈의 예방과 퇴치등의 사업을 위한 여러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 중 사단법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개설한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AIDS 상식〉, 제2장 확인된 감염경로”라는 제목하에 먼저 “AIDS는 어떻게 전염되는가”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설명 : AIDS는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성적 접촉이나 혈액에 의하여 전염되어 발생한다. HIV에 감염되는 주된 경로는 다음과 같다.

- HIV감염자와 주사기나 바늘을 같이 사용한 경우
- HIV감염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 감염된 산모의 임신이나 분만 도중에, 혹은 감염된 엄마의 수유를 통해"

위 설명에는 AIDS의 감염경로나 원인 중의 하나로 동성애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위 인터넷 자료에서, 이어서 'AIDS는 일명 게이병인가?' 라는 항목에서 다음에서 인용하는 바와 같이 AIDS와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자(남자끼리)에게서 발생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에이즈는 HIV에 의하여 유발되는 증후군으로서, 이 바이러스는 어느 한 성에 만 국한되어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 이 바이러스는 남자, 여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감염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게이나 레즈비언들도 성관계를 하는 상대방이 감염자일 경우에 한하여 감염될 위험이 있을 뿐이다. HIV감염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감염자 현황을 보면 남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녀간의 성관계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이즈예방단체에서도 에이즈의 감염과 동

성애는 의학적으로 무관하다고 하는 데도, 위 교과서는 에이즈의 주된 감염 원인 중 하나로 동성애를 들고 있으므로, 명백히 잘못 기술된 것입니다. 따라서 에이즈의 주된 감염원인 중의 하나로 동성애를 들고 있는 부분 역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결론

중세이후 오랫동안 잘못된 규범과 종교 교리등에 의하여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행동에서 배제해 온 서구사회는 현대에 들어 그에 대한 반성으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법적 차별을 금하는 쪽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해 왔고, 유럽공동체는 소속국들의 성적지향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내용에서 이건의 경우처럼 마치 동성애를 성적행동에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로 취급하거나 에이즈의 주범인양 기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서구와 같은 강제적 법제에 의하여 동성애를 범죄시해 온 예는 없으나, 유교적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다른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루 빨리 적극적으로 동성애의 성적지향을 사회적으로 인정 보호하고 차별을 금하는 입법을 마련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건으로 돌아와, 만일 동성애에 관해서 잘못 기술된 위 교과서 내용이 수정되지 아니한 채로 계속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 진다면, 이로 인하여 가치관 또는 인생관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증을 갖게 하여 각종 테러나 혐오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전



락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동성애자들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불안감, 수치심, 죄의식등을 갖게 하여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포함하여 한 개인의 성적지향의 결정은 생물학, 문화, 역사, 사회심리학적 영향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서, 사회속의 소수자 일뿐, 성적 지향을 근거로 그 개인이 정상인가 아닌가, 혹은 도덕적으로 건전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 누구든지 다른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생활방식이 비난받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교과서 내용은 동성애자들에게 보장되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동성애에 관한 교육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9. 7. 22.

위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창 국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조 용 환

변호사 김 기 중

변호사 도 재 형

변호사 진 선 미

교육부 장관 귀중.

별지(2)

### 삭제하여야 할 교과서 기재부분

1. 『윤리-고등학교』 (저작권자 교육부, 발행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발행일 1999. 3. 1.)

“에이즈(AIDS), 동성 연애, 매춘, 성 폭행, 마약, 음란 비디오, 저질 만화 등이 늘어나면서 성 도덕의 문란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성을 상품화하려는 상업주의에서 기인하며, 개인적으로는 성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성 윤리관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중 “동성 연애” 부분 삭제(106쪽)

2. 『교련-고등학교』 (저작권자 교육부, 발행인 향우산업주식회사, 발행일 1999. 3.1.)

가.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 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 정도를 지나친 성도착증, 이상 성욕 등은 청소년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성 의식과 성 역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전부 삭제(268쪽).

나. “에이즈 감염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 동성 연애자, 무분별한 이성 간의 성행위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오염된 주사를 맞은 사람,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체에서 태어난 태아에게서 발견된다”중 “동성 연애자” 부분 삭제(270쪽).

3. 「성과 행복」(저작권자 서울특별시 교육청, 발행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발행일 1997. 10. 1.)

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에 의한 성교, 동성애, 성폭력, 성도착증 등을 성적 문제 행동으로 본다”중 “동성애” 부분 삭제(83쪽).

나. “매매춘이나 동성 간의 성관계와 같은 불건전한 성문화는 건전한 성문화를 왜곡시키며, 여러 가지性病, 특히 에이즈(AIDS)와 같은 무서운 병의 전염 경로가 되기도 한다”중 “동성 간의 성관계” 부분 삭제(85쪽).

4. 「성과 생활 - 고등학교」(저작권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발행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발행일 1998. 3. 2.)

“에이즈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문란한 성행위를 삼가고 동성연애자, 약물남용자, 매춘 행위자 등과의 관계를 피해야 하며, 깊은 입맞춤도 위험하다”중 “동성연애자” 부분 삭제(82쪽).